

기후 위기

생각하다

자연+인간

을 환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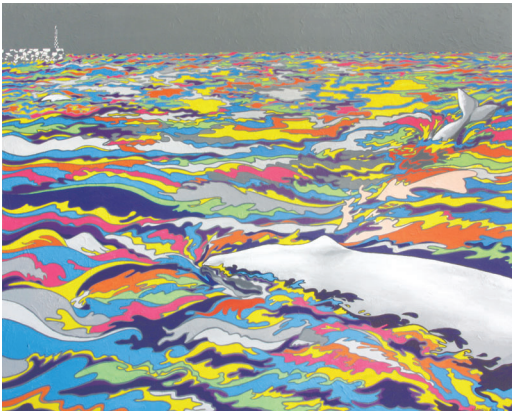


송필용 작 '물기 서사-소쇄'



이석중 작 '삶-동행'

자연의 속삭임-숨결부터 균열까지
무등현대미술관 '환경미술제'
24일까지 김수진·송필용 등 참여



엄기준 작 '귀신고래'

균열과 공존.
서로 상반된 의미를 환기하는 어휘는 오늘날 다
양한 분야에서 인류가 봉착한 문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자연과 환경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편리와
이기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연 파괴와 훼손
이라는 부정적인 그림자를 남겼다.
인간의 환경은 공존할 수 없을까. 지금의 균열은
봉합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건 아닐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로 환기하는 미술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자연의 속삭임-숨결부터 균열까지'를 주제로 무
등현대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환경미술제
(24일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공존을 이어가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조명하고 탐색한다.
이번 전시의 두 개의 키워드는 '숨결', '균열'이
며, 모두 8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먼저 전반부 '숨결'에서는 김수진 작가를 비롯해
선민정, 송필용, 이석중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자연의 정체성인 생명력, 미, 평온함을 작가
들 특유의 개성적인 감각으로 풀어낸다.
작가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
고 정중히 요청한다. 이들은 인간이 자행해왔던 무
분별한 개발과 파괴와는 변별되는 자연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
송필용의 '물기 서사-소쇄'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준다. 시원하면서도 맑은 물줄기가 쏟아지
는 그림은 마치 화면을 타고 청색의 물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다. 무더위를 저만치 밀어내는 한편 사
람들의 내면에 드러워진 근심, 걱정, 슬픔, 분노까
지도 소쇄하게 씻어낸다.
이석중의 '삶-동행'은 초목의 풍경이 넘실거린
다. 푸른 숲속으로 새가 깃드는 풍경은 마치 어린아
이가 모든 평화와 안식의 대상인 어머니의 품에 안
기는 모습이다. 바람이 불면 급방이라도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풍경은 그 자체 '숨결'로 다가
온다.

선민정의 'crop-쏟아지는 중'은 작품의 풍성함
을 보여준다. 푸르름 속 붉은 열매가 주는 것은 자
연의 신비함과 조화로움이다.
후반부 '균열'에서는 문선희, 엄기준, 정송규, 조
정태 작가의 작품이 관객들을 맞는다. 작가들은 비
가역적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술가 특유
의 자의식과 미적 감각으로 구현했다.
정송규의 '산불'은 산불의 현장을 타오르는 불꽃
으로 이미지화했다. 맹렬하게 불이 붙은 모습은 자
연이 인간을 향해 풀어내는 분노처럼 다가오며 인
간의 무지와 탐욕을 향한 경고로 일컫는다.
엄기준의 '귀신고래'는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우
울한 감각이 눈길을 끈다. 플라스틱 등 해양 오염물
질에 뒤덮인 고래는 숨이 끊어질 듯한 위기의 순간
에 노출돼 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펄펄 끓는 듯한
바다는 보는 이에게 균열을 넘어 파멸의 불안함을
인식하게 한다.
박우리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는 인간의 태도 여
하에 따라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보
여준다"며 "자연의 속삭임이 파멸 직전의 신음소리
인지 평안과 심을 주는 숨결인지 느낄 수 있는 계기
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송규 작 '산불'



ACC 개관 10주년 기념
문화상품 만나 보세요
텀블러·컵 반침 등 출시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
년이 되는 해다. ACC는 아시아적 가치를 토대로
문화 콘텐츠를 창제작해 세계와 소통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했다.
ACC 10주년을 맞아 기관의 상징성, 가치 등을
투영한 문화상품이 출시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ACC재
단)이 최근 선보인 상품은 텀블러, 컵 반침 등 일상
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품들이다. (기념 상품은 문화
상품점 '들락'과 들락 누리집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ACC의 주요 색상을 비롯해 건축적
특징, 문구 등을 현대성을 가미해 디자인을 입혔다
는 점이 눈에 띈다. ACC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먹
색, 그리고 건축물을 상징한 도형과 문구를 기반으
로 구현했다.
텀블러 제작에는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
'모슈(mosh!)'가 참여했다. 지난 4월 '시간을 담
은 아시아의 향' 차 세트는 공예 작가와 협업을 통
해 '백자 찻잔 티 세트'로 새롭게 선보인다. 백자 찻
잔 세트는 우아한 조형미를 발한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이번 문화상품들은
ACC 10주년을 기념해 색상, 디자인, 모형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ACC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복 80년 '평화를 그리다'

진도 여귀산미술관, 양태석 전시...9월30일까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빛을
회복한다는 광복의 의미가 새록새록 깊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광복에는 평화의 의미도 투영돼 있다. 세계정세
가 불안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
쟁으로 어느 때보다 평화는 중요한 가치다.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다투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고 희망한다.
진도 여귀산미술관에서 '평화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 중인 정계 양태석 화백의 전시는 평화의 의미

들을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는 기회다.
오는 9월 3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예술가
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작품에
서 환기되는 분위기는 파스함과 아늑함이다.
'평화'라는 제목이 붉은 그림은 푸른 초원, 화사
한 꽃들을 배경으로 소박한 마을의 풍경을 초점화
했다. 꽃무더기에 둘러싸인 마을은 그 자체로 한 폭
의 동양화다. 전쟁이나 폭력 같은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도 깃들이지 않는 지상의 낙원을 보여주는 듯
하다.
'백도'는 천상의 풍경을 옮겨온 것처럼 신비롭고

도 아름답다. 흰 절벽에 서 있는 푸른 소나무와 파
란 수면 위를 물결듯 떠내려가는 유람선은 낙원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녹색과 백색의 조화는 보는 이
의 눈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의 의미를 소담하게 전
한다. 그렇듯 작가는 아름다운 강토, 자연이 전쟁이
나 폭력 등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염원을 화
폭에 투영했다.
양 화백에 따르면 자주 사용하는 색은 녹색, 청색
이다. 이번 전시작품에 사용된 오방색(청, 적, 황,
백, 흑) 중 녹색과 백색이 눈에 들어온다.
시인이기도 한 양 화백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해로 '평화'를 주제로 전
시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여귀산미술관
을 찾은 관람객들이 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 평안
을 느끼고 중요성 등을 떠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
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도'

브람스, 창작의 여름

광주여성필 시리즈 네번째 무대...16일 광주예술의전당

여름의 빛 속에서 태어난 브람스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광주여성필·
대표 김유정)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 네 번째 무대 '영감의 재해석'을 선보인
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로 선정된 광주여성필은 지난 4월부터 독일
낭만주의 거장 요하네스 브람스의 명곡을 중
심으로 여섯 편의 기획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
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대표 관현악곡
과 실내악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만날 수 있
다.
박승유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김상운 미국 미네소타 음대 교수(클라리
넷)가 협연자로 함께한다.
첫 곡은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Op.80).
브람스가 브레슬라우대학(현 브로츠와프대
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학생들의
노래와 축제 분위기를 바탕으로 작곡한 유패하

고 경쾌한 곡이다.
이어지는 '클라리넷 소나타 1번' (Op.120)
은 노년의 브람스가 남긴 서정적인 걸작으로,
원래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위한 실내악곡이지
만 이번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색
다른 편성으로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쇤베르크가 대편성 관현악으로
편곡한 '피아노 4중주 사단조' (Op.25). 원곡
의 긴박하고 격정적인 성격을 오케스트라의 풍
부한 음향으로 확장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
은 편곡판이다.
김유정 대표는 "한여름이 지난 주말 오후, 시
민과 음악애호가들이 함께 브람스의 음악을 즐
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는 오는
10월 14일 '관현악의 순간'과 11월 8일 '지음
지교(知音之交)'로 이어진다.
관람료 1만원, 학생·경로·장애인·다문화가
족 무료 초대. 티켓 수익금은 고려인마을과 다
문화음악학교에 기부 예정.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책 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바람길, 가족 뮤지컬 '페이지나' 22·23일 북구문화센터 무대에

책 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나의 역할이 이야기 속 악당이라면? 미완성 원고
속으로 뛰어든 주인공의 좌충우돌 모험이 펼쳐진
다.
창작뮤지컬 '페이지나'가 오는 22일(오후 7시
30분)과 23일(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무대에 오
른다. 일상의 소중함과 관계의 의미를 담은 이번 작
품은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사로 가족 관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은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던 소설가 '비
비안'이 엄마의 미완성 원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악
역 '올리비아'로 변신하며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
다. 처음에는 악역에 몰입하던 비비안이 점차 소설
속 인물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완성하려 애
쓰는 과정에서 성장과 화해를 경험한다. 웃음과 감
동이 어우러진 서사가 '지금'을 살아가는 소중함을
전한다.
이번 공연은 공연집단 바람길의 선보인다. '메아
리', '대한의 이름으로' 등에서 호흡을 맞췄은 한주
은 작가, 최현규 작사가, 서진영 작곡가가 세 번째
로 함께한 작품으로,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



뮤지컬 '페이지나'의 한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티볼 창작지원자에 선정돼 지난해 대구에서 초연한
바 있다.
나기백 이사장은 "자극적인 소재 없이도 관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이라며 "아이부터 어른까
지 모두가 웃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7세 이상 관람 가능, 전석 1만원, 티켓링크·네이
버예약 예매. /정혜원 기자 hey1@